

## 한대위 출범, 학생사회 움직임이나?

지난 9월 21일, 본교 수강신청 문제를 제기했던 동아리 '꿈꾸는 고래'와 본교 학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한성인을 위한 교육권 대책 위원회(이하 한대위)'가 출범했다. 한대위는 학칙에 명시된 공식 학생 기구는 아니지만, 최근 SNS와 규탄자보 게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새로운 학생조직이다. 한대위 구성의 주축이 된 꿈꾸는 고래는 2학기 수강신청 기간부터 수강신청 문제 개선과 교양과목 확충을 요구해온 바 있다. 한대위는 지난 10월 31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앞서 꿈꾸는 고래가 요구했던 사항에 덧붙여 ▲총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 개선 ▲학내 행정부서 서비스

개선 ▲강의 수 확충 ▲트랙제 지침 구체화 ▲비교과와 포인트 제도 확립 ▲상상력 이노베이터 강의 구체화 ▲동아리 지원 확대 ▲예대 등록금 개선 등으로 요구사항을 확대했다. 꿈꾸는 고래 대표이기도 한 한대위 김우진(역사 3) 위원장은 출범 이유에 대해 "수강신청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측에 이 문제를 제기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꿈꾸는 고래 활동을 하며 진행했던 '수강신청 문제 서명운동'과 동아리 내부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수강신청 문제에 더

해 학내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다루자는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과 규합해 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한대위는 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규탄자보를 학내에 게시했으며, 이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7일 한대위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요청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협부회장 서영운(영어영문학부) 교수는 "과거 총학생회와 학교 측에 학내 문제에 관해 면담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며 "우리 대학의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한대위와 면담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면담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교협회장 김성복(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는 "트랙제의 모호한 지침으로 인해 강의 시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교수들이 많다"며 한대위의 요구사항에 공감했다. 또한, 그는 "트랙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학교 측이 소통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앞으로의 개혁이 우려된다"며, 이후 한대위가 학생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학기에는 트랙제의 본격적인 시행, 비교과 포인트 제도 및

수강신청 제도 변화가 예정되었다. 그때까지 약 5개월 남짓, 한대위가 새롭게 출범할 학생회들과 함께 학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한대위 김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올해 안에 학교 측과 면담이 이뤄지도록 학생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학생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1월 셋째 주 중으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들에게 연락해 학내 문제들을 더욱 공론화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 지면안내

보도 대학본부, '트랙제도' 관련 입장 밝혀 **02**



사회 예술대 차등 등록금... 누구를 위한 특수성인가 **03**

기획 끊이지 않는 '교내 흡연' 논란, 그 진상을 파헤치다 **04**



사람나 꿈꾸는 자들의 마을, 알록달록 상상큐브 **05**



학술 '명목사회의 재앙, EMP를 아십니까?' **06**

오피니언 의화정, 삼학송 등 **07**

문화 초록색만 먹는다고? No! 눈과 입이 즐거운 채식주의 **08**

## 트랙제도 운영 난항, 해결 실마리 풀리나

지난 9월 25일 발행된 <한성대신문> 제526호 보도면 기사에서는 우리학교 트랙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뤘다. 이에 대학본부는 대책을 숙고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7일, 노광현 기획처장과 조세홍 교무처장이 트랙제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본사가 실시한 '본교 트랙제도 인식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랙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주요한 의견점은 ▲학부 간 수업료 차이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미보장 ▲미실기 입학 학생 실기트랙 수강 허용 ▲트랙기초의 학문적 깊이 부재 등이다. '학부 간 수업료 차이'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소속된 학부 이외의 타 학부 트랙도 수강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학부별로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부 학생이 ICT디자인학부 트랙을 수강하면 약 1백만 원의 수업료를 절감하면서

ICT디자인학부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미보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부 학생들이 자신이 소속된 트랙의 정원이 마감되어 원하는 트랙을 수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타 학부 트랙을 수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는, 앞서 언급한 수업료 측면과도 연관된다. 주로 다른 학부와 수업료가 약 1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디자인대, 예술학부, 공대 학생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원하는 트랙을 수강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미실기 입학 학생 실기트랙 수강 허용'에 대해 디자인대학과 예술학부 학생들은 실기를 치르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 실기트랙을 수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 입시 기간 동안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실기시험을 준비한 후 대학에 합격해 입학했는데, 실기 경험이 전무한 타 학부생들이 본인과 같은 수업을 심지어 더 저렴한 수업료로 수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트랙기초의 학문적 깊이 부재'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이미 진로가 확정된 학생들이 1년 동안 각기 다른 4개 트랙기초를 배워야 하는 트랙제도 특성상, 본인이 원하는 분야

에서 보다 전문적인 전공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대학본부는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거나, 이미

관련된 대책을 수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2면에 계속**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신원서비스 > 17학번 트랙 신청

**17학번 트랙 신청**

소속 대학 및 학부

소속 구분

학번 및 성명

제1 트랙 선택(\*필수)

제1 트랙을 선택하세요...

소속 대학의 트랙을 선택하세요.

제2 트랙 선택(\*필수)

제2 트랙을 선택하세요...

전체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저장**

안내

1. 17학번 신입생의 트랙 신청 메뉴입니다.  
2. 원하는 트랙 선택하신 후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3일 금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1학년 학생들은 제1트랙과 제2트랙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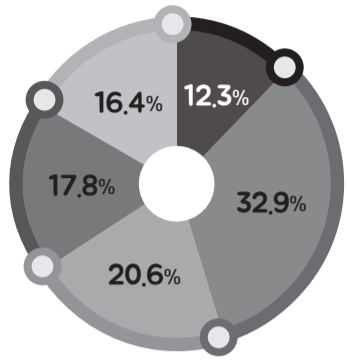
인명보장·상시모집  
hansungnews@gmail.com  
**제보모집**

**기자사령**  
임 부장기자 김종민(한국어문 2)  
김수현(인문 1)  
강예림(사회과학 1)

# 대학본부, '트랙제도' 관련 입장 밝혀

## 본교 트랙제도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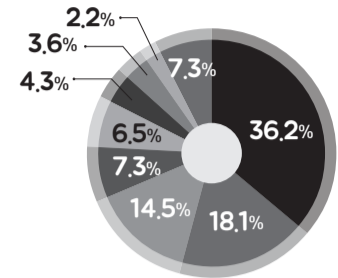
Q. 트랙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도움이 된다 ● 약간 도움이 된다  
● 그저 그렇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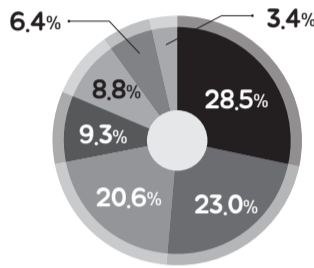
\* 본 설문은 표본은 73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56명(76.7%), 2학년 7명(9.6%), 3학년 5명(6.8%), 4학년 3명(4.1%), 휴학 1명(1.4%), 무응답 1명(1.4%)입니다.  
\*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Q. 트랙제도의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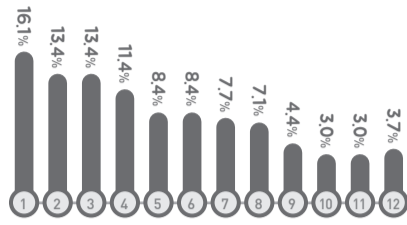
● 전공 탐색 기회 제공 ● 법학문적 전공 다양성  
● 융합형 인재로의 성장 ●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 타학부생과의 교류 ● 대학과의 차별화  
● 취업 시 유리한 경쟁력 ● 기타 ● 무응답

Q. 트랙제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성급한 트랙제도 추진 ● 트랙제도에 대한 정보전달 부족  
● 학생 의견 미반영 ● 자본주의적 정책 수립  
● 학생회의 전체인원 포용 실패 ● 단편적인 학생 입장 고려  
● 기타 ● 무응답

Q. 트랙제도에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학부 통합으로 인한 소속감 저하 ② 학생 및 교수 트랙제도에 이해 부족  
③ 학부 간 수업료 차이 ④ 트랙기초의 학문적 깊이 부재  
⑤ 단과대학 내 학부 구성 기준 모호 ⑥ 상상력인재학부의 정체성  
⑦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미보장 ⑧ 상상력인재학부의 정체성  
⑨ 특정트랙 인원 편중 ⑩ 미실기입학생 실기트랙 수강 허용  
⑪ 미실기입학생 실기트랙 부적응 ⑫ 트랙명칭 변경 ⑬ 기타

Q. 트랙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보장  
② 모든 학부 수업료 동일 ③ 단과대학 내 학부 구성 기준 명시  
④ 소속감 강화 프로그램 운영 ⑤ 학생 및 교수 대상 트랙제도 교육 실시  
⑥ 상상력인재학부 시스템 체계화 ⑦ 실기트랙 선택 제한  
⑧ 트랙기초 수업 난이도 조절 ⑨ 트랙 명칭 및 성격 고취화  
⑩ 실기트랙 내 미실기입학생 편반 개선  
⑪ 비인기 트랙 폐지 ⑫ 기타 ⑬ 무응답

우리학교가 트랙제도를 시행한 지도 어느덧 두 학기가 지나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전공 탐색 기회 제공'이라는 트랙제도의 강점에 만족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트랙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1월 7일, 대학본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본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트랙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주요한 의문점은 ▲학부 간 수업료 차이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미보장 ▲미실기입 학생 실기트랙 수강 허용 ▲트랙기초의 학문적 깊이 부재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노광현 기획처장과 조세홍 교무처장은 각각의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학부 간 수업료 차이'에 대해 노 처장은 "수업료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트랙제도가 올해 도입돼 수업료를

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의 등록금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예술학부·디자인대·공대 교육과정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급할 때, 제1트랙과 제2트랙이 소속된 학부 수업료의 평균값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미보장'에 대해 조 처장은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트랙은 해당 트랙에서 요청하면 추가로 분반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해당 트랙이 분반 개설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소속된 학부 트랙의 수강신청 정원이 차서 아쩨 수 없이 타 학부 트랙을 신청했다는 경우는 보고받지 못했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실기입 학생 실기트랙 수강 허용'과 관련해 조 처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시간, 노력을 들여 실기를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사회에서는 원래 자연도태 되는 법이다. 미실기입 학생이 실기트랙을 수강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지 않겠나. 만약, 그 학생이 실기에 소질이 있다면 그 학생의 소질을 살려주는 게 오히려 학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트랙기초의 학문적 깊이 부재'에 관해 노 처장은 "기존에는 1학년 2학기부터 전공을 배웠지만, 그것도 기초 전공 1~2과목에 불과했다. 1학년 학생들이 입장에서 전공 1~2과목을 일찍 배우지 못하는 것에 조금만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고학년 진급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한 학기 정도는 엄청난 시간이 아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트랙을 경험해보고 학생들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랙제도는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우리학교의 야심찬 사업이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트랙제도 선두주자'로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대학본부가 트랙제도의 세부 사안들을 개선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안정화된 트랙제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향후

회보가 기대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한성 #타임라인

###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오는 11월 15일까지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이 주최하는 제11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접수가 이루어진다. 다음 날인 11월 16일 예선을 치른 후, 홈페이지에 본선 진출자 명단이 공개되며, 본선은 23일 미래관 DLC에서 개최된다. 본선은 '4차 산업혁명',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젠더폭력' 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PPT로 만들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80만 원과 비교과 포인트 100점, 우수상에게는 상금 30만 원과 비교과 포인트 80점, 장려상에게는 상금 10만 원과 비교과 포인트 60점이 부여된다. 또한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도 비교과 포인트 40점이 부여된다.

대회 주최 기관인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나은미 주임교수는 "논리적 구성 및 전달력, 내용의 창의성, 전달 및 설득 방법의 창의성, 슬라이드 구성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주제 분석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본 대회가 발표토론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콘서트 열려

지난 31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의 인기 삽입곡으로 콘서트가 열렸다.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은 가수 곁길광석과 그룹 '동물원'의 음악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배우들이 '해화동', '서른 즈음에', '널 사랑하겠어', '사랑했지만' 등 그룹 '동물원'의 명곡을 공연했다.

이번 콘서트는 학술정보관이 한성학원 장학 72주년 및 우리학교 개교 4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것으로 ▲이상한 총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병환 성북구청 부구청장 ▲송대식 성북구의회 의원 ▲유재선 성북진로직업체험센터장을 비롯한 약 500명의 성북구민이 함께 했다.

이상한 총장은 "우리학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11월에는 감장 행사를, 12월에는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방학을 대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총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이런 좋은 공연을 개최해준 것에 대해 한성대학교에 감사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외국인 한국어 뽀내기 대회 개최

지난 10월 28일, 우리학교 언어교육센터에서 주최한 '제6회 외국인 한국어 뽀내기 대회'가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대회는 '한국, 이것이 좋다!'라는 주제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으며, 참가한 팀은 연극·공트·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경연을 선보였다. 이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총 9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6팀이 ▲총장상 ▲성북구청장 ▲청산유수상 ▲각양각색상 ▲공감백배상 ▲일심동체상을 각각 수상했다. 국가 구분 없이 3~5인이 팀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연령 제한 없이 해외 거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이 날 이상한 총장은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학교는 본 대회를 중요 행사로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너의 한국어가 보여'를 주제로 청산유수상을 수상한 조선왕조팀 구성원(한국어문 석사과정) 학생은 "학내 어학원 교수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오랜 연습 끝에 거둔 상이라 보람차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rkaahreum@gmail.com

## 경영학부, 장수마을에 연탄 1,300장 기부

지난 7일, 경영학부 학생회(이하 학생회)가 삼선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회는 삼선동1가에 위치한 장수마을을 주민들에게 연탄 1,300장을 전달했다. 기부처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를 통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경로당,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학부 학생을 비롯한 사회과학대 학생 총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경영학부 윤남영(경영 4) 학생회장은 "경영학부 교수님들이 내 주신 성금에 학생회가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해 번 수익금 일부를 더해 총 100만 원 어치 연탄을 기부했

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학년 때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학생회장이 되면서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작년년부터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강제 성북동 7동장은 "연탄 수요가 줄어 연탄 가격이 높아졌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올라 연탄 한 장이 약 1,000원에 거래된다. 연탄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옮기는 것까지 직접 도와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수혜자는 "너무 고맙다. 다른 것보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도현(사회과학 1)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연탄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차다. 연탄이 이웃들

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동화 기자

amor929@naver.com



▲ 연탄을 옮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 동정란

**김창홍(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제11회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명사서예전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앙전시실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예 작품을 전시한다.

**안현주(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안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리는 '2017년 제주정책박람회'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작품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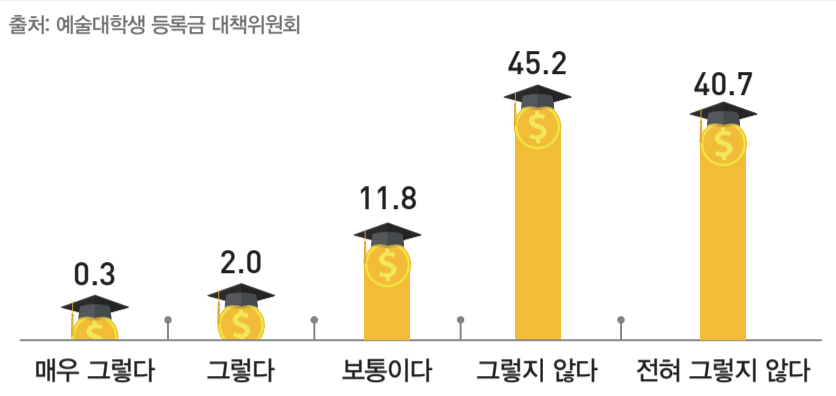
# 예술대 차등 등록금... 누구를 위한 특수성인가

최근 예술대학의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와 체계 환원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장이 미술대학 전체 재학생 수에 맞춰 '2664배(拜)'를 끝마쳤다. 이는 '긴급 학생총회 성사 기원'과 '미술대학의 정당한 특수성 보장 요구안' 수용 촉구를 위해 진행한 퍼포먼스다. 이에 따라 타 예술대 학생들의 행동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교육환경 개선을 원하는 전국 각지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으며, 현재 우리학교 예술대학을 비롯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등 26개 단과대학이 가입되었다. 또한 대책위가 지난 10월 23일 까지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전국 예술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예술대 등록금 설문조사'에는 총 1만 162명이 참여하는 등 예술대 등록금 환원율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많던 예술대생 등록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예체능계열 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777만 3000원으로 인문사회계열 연평균 581만 1000원보다 196만 2000원 높다. 이처럼 예술계열의 등록금이 높게 산정되는 이유는 '계열 특수성' 때문이다. 대학들은 계열 특수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험실습비와 기자재

##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입비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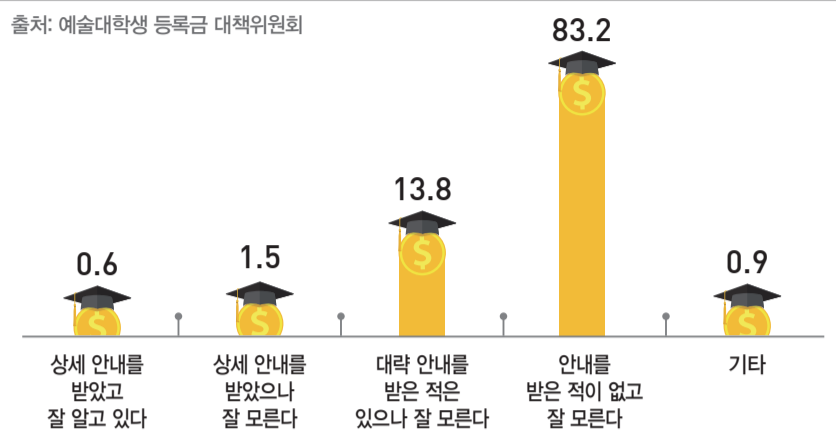
하지만 대책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시설 노후 ▲장비 부족 ▲실습실 야간 이용 불가능 등을 꼽았다. 또한 '등록금 납부 시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3.2%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안내를 받았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0.6%에 불과했다.

더 비싼 등록금에 추가 비용, 늘어나는 부채 학생들의 불만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등록금 외에 전시기, 가스비, 특강비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불어 학교 시설 및 공간 이용 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도 사비로 구입해야 하니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학생은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업에 투자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아 재료비 및 기타 실습비에 사용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예술대 학생의 경우, 졸업 전시·공연을 준비하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대다수다. 학교에서 졸업작품비를 일부 지원하기도

## 등록금 납부 시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위: %)



하지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번에 졸업작품을 준비한 B 학생은 "졸업을 앞둔 현재, 빚이 벌써 1000만 원이다. 등록금을 내기도 빠듯한데 졸업준비금과 졸업작품 공동 작업비로 인해 빚이 200만 원이 더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예술계열 전공자 1만 162명 중 34.8%가 '등록금 혹은 추가 비용으로 인한 부채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4년제 대학생 평균 29.9%보다 높은 수치다.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되는 투쟁

대책위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과 관련한 교육여건 해결을 위한 법안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후일, 이를

국민 청원으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금 산정 근거와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을 요청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대표단은 "예술대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예술대 학생에게 환원되어 실기장비 및 시설 개선, 수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가입한 본교 예술대학의 강필준(에니 4)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를 대학 본부에 요청하는 중이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와 이야기 중"이라며 꾸준한 활동 의지를 밝혔다.

박정림 기자 rma0418@hansung.ac.kr

## 당신의 데이트는 안녕하십니까?

### 여성의 61.6%, 데이트폭력 겪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데이트폭력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게재한 '고려대 대자보' 사건이, 지난 8월 제주도에서는 20대 문모 씨가 "다시 만나자"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최근 대학가에서 데이트폭력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실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1,017명 중 61.6%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1월 5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숫자는 8,367명에 이르렀다. 이는 2015년(7,692명) 대비 8.8% 늘어난 수치다.

'폭력을 당한 직후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9%가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전문상담기관에 알린 경우는 2.5%,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피해자들이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한 피해자들은 어땠을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 중 90.4%가 친구, 선배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받은 상대는 이를 '참고 있는 피해자를 나무라거나(51.0%)', '당사자끼리 해결하라(32.5%)'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사소한 일로 취급(53.3%)'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데이트폭력으로 5,757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구속된 사람은 190명에 불과했다.

한편, 해외에는 데이트폭력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클레어법)'에 의해 경찰의 승인을 거치면 연인의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범죄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형사상 처벌 외에 금전적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들이 범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접근 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는 '가해자 처벌 등 법적 조치', 3순위로는 '피해자 피해 회복과 지위를 위한 지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데이트폭력방지법)'을, 지난 11월 1일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피해자보호법)'을 발의해 현재 여성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한편,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성폭력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희승 기자 yoonihng@gmail.com



▲ 신체적 폭력 외에 데이트 상대의 통화내역과 문자 내용을 검사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된다.

##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주휴수당'

대학생 한성이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루 4시간씩, 평일 5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게 된 한 씨는 패스트푸드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막상 협의하려고 보니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주휴수당의 정체를 낱알이 파헤쳐보자.

먼저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해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적어도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휴일은 매주 부여되는 휴일이기에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주휴일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일컫는다.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풀어서 해석하면 쉽다. 먼저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즉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출근일을 말한다. 한 씨의 소정근로일은 5일이다. 출근의 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일이 유급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한 씨가 일주일 동안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일주일 중 출근일 5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의 휴일 중 하루는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에서는 개근을 요할 뿐 '만근'이 아니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는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장 내 정직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시간근로자'로 취급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근로조건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점에서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 회사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일요일에도 8시간 일한 것처럼 임금을 계산한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주휴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이에 비례해, 한 씨처럼 1일 4시간, 1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일 근로시간은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한 씨의 주휴수당은 '시급\*4시간' 값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단시간근로자가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종현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만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근로계약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 임금, 즉 주휴수당을 당당히 청구하자.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끊이지 않는 '교내 흡연' 논란, 그 진상을 파헤치다

응답자 약 94%, "금연구역 내 흡연 또는 목격 경험 有"

교내 흡연 문제는 우리학교에  
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  
인 문제 중 하나다. 현재까지 학생  
들은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  
무쉴' 페이지 등 커뮤니티를 통해  
교내 흡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견 제시를 꾸준히 해왔다.  
이에 한성대신문사는 본교 교내  
흡연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기 위해 페이스북 '한성대신  
문사' 페이지와 학교홈페이지 '낙산  
의 메아리'에서 본교 재학생을 대

상으로 약 일주일 동안 '교내 흡연  
인식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응답자 총 141명 중 흡  
연자 94.2%와 비흡연자 94.4%가  
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봤거나

흡연하는 사람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흡연자  
59.7%와 비흡연자 96.6%가 교내  
흡연자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을까? 먼저 흡연자의  
25.0%가 '교내 담배꽂초 또는 가  
래침 등 오물'이라고 답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인한 간  
접흡연(18.8%) ▲흡연구역 현관문  
개폐 소홀로 인한 간접흡연  
(17.5%) ▲흡연구역 보행 시 호흡  
어려움(16.2%) ▲흡연자에게 밴  
담배 냄새(10.0%) 등이 잇따랐다.

먼저 흡연자의 34.2%가 '건물별  
흡연구역 확충'을 지지했다. 이후  
▲흡연구역 표식 설치(22.8%) ▲  
흡연구역 재설정(21.0%) ▲건물  
내 흡연구역 분포화(20.2%) 순이  
었고, 이하 항목들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비흡연자 역시 34.8%가 '흡연구  
역 재설정'을 지지했다. 이어 ▲흡  
연구역 표식 설치(22.8%) ▲건물  
별 흡연구역 확충(19.0%) ▲건물  
내 흡연구역 분포화(11.4%) 순으  
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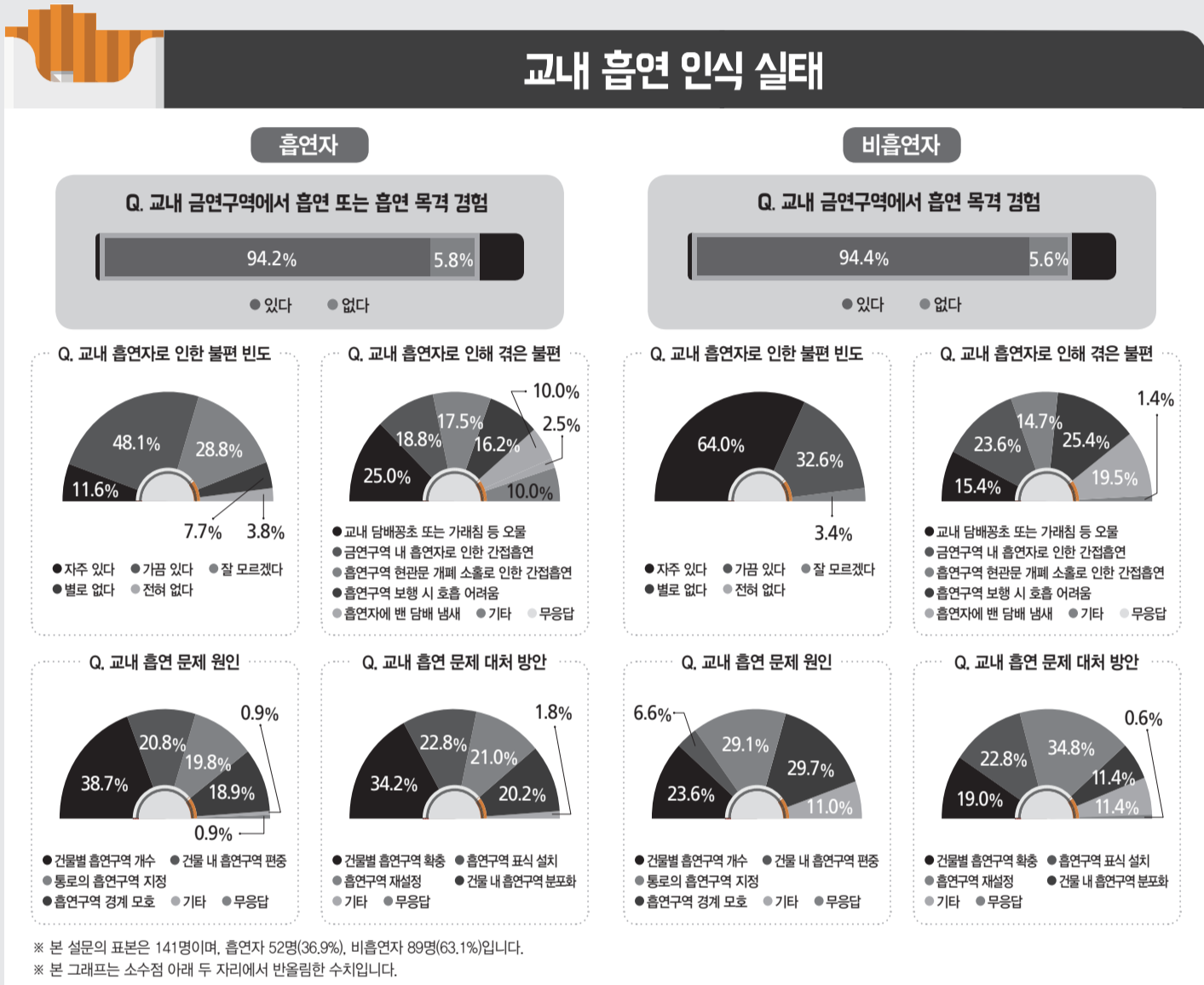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흡연자의  
경우, 전체 건의사항 9건 중 5건이  
'상상관 내 흡연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통분모를 보였다.

한편, 비흡연자의 건의사항은  
매우 다양했으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처벌 강화 ▲방향제 소지  
등 탈취 문화 확대 ▲흡연자의 경  
각심 고취 ▲학생관 옆 흡연구역  
경계 명시 등에서 다수의 의견이  
일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현재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각자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배타적이라  
고만 볼 수는 없다. 대학본부가 흡  
연자와 비흡연자의 요구사항 사이  
간격을 좁히고 일치하는 부분은  
수렴해 '건강권과 흡연권'의 공존  
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진실 혹은 거짓' 흡연이 알고 싶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의 영향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냄새를 맡는 게 나빠 봤자 얼마나 나쁘다고 그래', '간접흡연이 싫으면 흡연구역에서 숨을 참으면 되잖아',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혹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우리는 흡연의 과급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더 치명적인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 보건소의 이제민 금연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옆 사람에게서 나는 담배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는지.**

**A.** 흡연을 할 때 담배 속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이 흡연자의 옷 표면에 달라붙는데, 이것이 공기 중의 '아질산'과 반응해 '니트로자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실외에서만 흡연하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의 모발에서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자 정에 비해 높게 측정된 실험 사례도 있다. 이를 3차 흡연이라 한다. 비흡연자 앞에서 흡연하지 않더라도 비흡연자가 담배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 문제까지 더해지면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다.

**Q. 흡연구역을 지날 때 숨을 참으면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는가.**

**A.** 아니다.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 입자는 상당히 미세한 크기이므로 숨을 참는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은 미세먼지용 방진

마스크가 아닌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3차 흡연 역시 넓은 의미에서 간접흡연이라고 볼 수 있다.

**Q.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나쁘다면.**

**A.** 흡연자가 흡연할 때 '담배가 타면서 나는 연기'의 성분은 '필터를 거쳐 흡입한 후 내뿜는 연기'의 성분보다 더 해롭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자를 '부류연(비주류 담배연기)', 후자를 '주류연(주류 담배연기)'이라고 한다. 부류연은 여과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지만, 주류연은 담배 속 필터를 거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정제된 후 배출된다. 물론, 단순히 '간접흡연'을 했다는 것만으로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쁘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주류연이든 부류연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점은 같다는 사실이다.

이 상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라고 하기에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흡연자에게 금연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흡연자의 흡연권 역시 비흡연자의 건강권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흡연자들도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는 비흡연자의 이런 처지를 인정하고, 이들이 느끼는 불편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흡연자 · 비흡연자 서로 양보해야..."



▲ 학생관 옆에서 흡연하는 학생들

교내 흡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학교에는 '흡연구역'을 관리하거나 '흡연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그나마 시설지원팀에서 흡연구역을 관리하는 편이지만, 흡연구역 팻말이나 재떨이 등 기물 설치를 주로 맡을 뿐이다.

흡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보니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제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권후관(건강관리실) 실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가 없다. 흡연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보면 학생들이 직접 경고를 쥐고 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시설지원팀) 팀장은 "시설지원팀 성격상 학교 미화업무도 하는데 가래침이나 담배꽂초도 치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몇 년 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지만 일부 학생들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담배꽂초를 바닥에 버리지 말라', '침을 뱉지 말라'고만 말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흡연구역 확충에 대해서도 "흡연부스 설치도 고려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설치할 곳이 없다. 우리학교는 캠퍼스가 협소해 어디에 설치할 해도 건물과 인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규에 의하면 상상마당이 유일하게 흡연 가능한 곳인데 운동장 한 가운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으론 나쁜상이나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우리학교 여건상 흡연구역을 통로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흡연자는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고, 비흡연자는 흡연구역을 피해 가는 등 서로 노력해야 한다"며 절충을 강조했다.

교내 흡연 문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각자 입장을 밝혔다. 권 실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과 교직원들도 노력해야 한다"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 역시 "흡연구역을 홍보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다. 현재는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도기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이해 상충에 확실한 접점은 없는 것 같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들과 함께 개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흡연 문제 개선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싶어도 환경적·법적 제약이 많은 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이번 인터뷰 자리에서 학내 각 부처 담당자들이 흡연구역 명시 및 홍보, 금연구역 처벌 안 내 공지를 약속한 데 이어, 우리 학우들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 흡연권과 건강권이 공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꿈꾸는 자들의 마을, 알록달록 상상큐브



개구리전기 은성균 대표

우리학교 탐구관 뒤에 위치한 상상 큐브에는 '개구리전기'라는 기업이 입주해있다. 개구리전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은성균 씨는 6년 간의 개량 끝에 '방수 콘센트'를 발명한 사람이다. 여러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는 그는, 사실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경영학과 출신이다. IMF와 잇따른 실패를 겪고 발명으로 성공한 은성균 대표를 만났다.

**Q. 최근 창업을 한 사람치고는 나이가 좀 있어보인다**  
A. 원래 무역업에 종사했다. 한참 IMF가

터졌을 때, 여러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어음거래를 주로 하는 무역업은 특성상 거래협력업체가 무너지면 같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회사가 부도 나서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반지하방을 전전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문과 전공자는 기술이 없는 상태로 실직하면 끝이다. 4년제 대학의 경영학 전공 이력으로는 생산직에 취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주차관리나 건설현장업과 같은 단순노동 현장을 떠돌았다. 자식이 셋이라 돈마저 모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발명을 시작하게 됐고, 딸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 발명품을 갖고 창업에

나선 것이다.

**Q. 발명? 문과라고 하지 않았나**

A. 발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 가족과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는데 막내가 바닷물에 빠졌다. 얼른 가서 구하고 보니 막내 옷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휴대전화를 말려봤지만 결국 망가졌고, 번득 '휴대전화가 방수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발명을 막 시작했을 때는 중고 휴대전화를 구해, 그것을 부수고 구조를 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구조를 숙지한 후에는 독학으로 전기와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을 섭렵했다.

**Q. 그래서 돈은 좀 벌었나**

A. 발명은 성공했지만, 방수 휴대전화로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시기적으로 국내 휴대전화 자체가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방수 휴대전화는 2002년에 발명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휴대전화는 세계시장 점유율 1% 내외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발명 외의 길이 궁했기에, 그 후에도 발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발명은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잠깐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메모를 했고, 돈이

조금 모인다 싶으면 구상했던 발명품을 실제로 만들어냈다. 실패 없이 발명을 하다 보니 두려움 세도 없었던 것 같다.

**Q. '개구리전기'라는 이름이 특이한데 혹시 발명품이 뭔가?**

A. '방수 콘센트'를 개발 중이다. 일반 콘센트와 다르게 고무를 이용해 물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는 콘센트로, 우천과 같은 상황에서 감전을 예방한다. 고압 전선이 노출돼 있는 건설 현장이나 매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발명품은 큰딸과 동갑인 여성이 비오는 새벽에 출근하다가 감전사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개발하게 됐다. 길에 놓인 입간판의 전력이 켜져있었는데, 비가 내려 바닥이 젖자 누전이 일어나 지나가던 여성이 감전사한 것이다. 이 뉴스가 도무지 남일 같지 않았다. 더 작고 복잡한 방수 휴대전화도 개발했는데, 방수 콘센트라고 못 만들겠냐는 생각으로 연구에 매진했다. 그 후 6년 동안 방수 콘센트는 세 번의 개량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복잡한 구조였지만, 지금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Q. 발명이라고 하면 어쩐지 전문적이고**

어려운 느낌이 든다

A. 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음료 캔을 따는 곳에 손톱이 끼지 않도록 흡을 판 아이디어가 코카콜라 주식회사에 5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린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내 발명품도 전부 일상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발명은 공학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최신 기술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다.

**Q. 끝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요즘 청년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한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숨만 붙어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나도 한 때 실직과 사업 실패 때문에 며칠을 술로 보내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던 적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 때의 선택을 바보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로 도약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

박아름 기자 parkaahreum@gmail.com



##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현대가구, 수수코지

지금부터 소개할 우리학교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4학년 신혜수, 김연수 수수코지 공동대표는 마치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밟은 것 같이 이제 막 창업에 발을 디딘 이들이다. 현재 수수코지는 한국형 모듈가구 브랜드를 주력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형모듈가구란 무엇일까. '한국형'이라는 것은 못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짜맞춤 결합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모듈가구'는 한 덩어리로 된 가구가 아니라, 각각의 기능을 지닌 가구를 서로 결합시켜 나만의 맞춤형 가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가구를 말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을 합친 것이 바로 한국형모듈가구다. 수수코지를 장차 한국을 대표하는 가구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는 그들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자.

**Q. 1인 가구(家口)를 위한 가구(家具)라고**  
A. 한창 사업을 기획할 때,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중 혼자 사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사업 구상에 큰 도움이 됐다. 학생들이 큰 가구는 좁은 자취방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완성형 가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1인 가구의 사정을 고려해 모듈가구를 만들어보고자 기획했다. 모듈가구는 상대적으로 부피도 작고, 가격적인 측면

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Q. 왜 굳이 우리나라 기법을 선택했나**

A.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북유럽이나 일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알아본다. 우리나라 가구를 "공예품같은 고가의 제품", "실생활에 두고 쓰기에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적 요소인 짜맞춤 기법에 현대적 요소인 '모듈'을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했다.

**Q. 짜맞춤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뭔가?**

A. 사실 나무와 못은 상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조립해 쓸 수 있는 조선시대 짜맞춤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목공업계에서도 짜맞춤 기법을 쓰고 있고, 못 없이 접착제만 사용하는 맞춤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들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가구를 완성품으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짜맞춤 기법의 특성에 맞게 고객이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플랫팩(Flat-pack, 납작한 상자에 부품을 넣어서 파는 자가 조립용 가구) 형식으로 배송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Q.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

움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A. 창업을 시작할 때 서로 약속했던 것이 있다.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은 각자 학업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졸업 작품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을 생각이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 후에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한다.

**Q. 디자인 분야로 창업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아무래도 IT분야는 창업이 강세라서 IT관련 정보와 사업 지원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디자인 계열은 아직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하다. 또한, 디자인 분야는 진입 장벽이 낮아 전공자가 아니어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도 아쉽다.

**Q. 창업을 시작할 때,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A. 응원해주는 분들도, 걱정해주는 분들도 많았다. 또 학생 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 큰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준 분도 있었고, 아이디어를



수수코지 공동대표 신혜수, 김연수 학생

제공해주신 분들도 있었다. 덕분에 힘을 얻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A. 제일 중요한 건 정보 싸움이다. 정보를 알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잘 모르면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 보통 '이걸 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하는데, 정확한 기한과 목표를 정해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초기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탓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달동안 추진했던 일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탓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처럼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에 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만약 창업을 할 생각이라면 우선 멘탈부터 단련할 것을 추천한다.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다면**

A. 다른 회사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해보고 싶다. 가구 브랜드이다보니 공동 작업을 하는데 제한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목공 전문가와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셀튼몬스터'가 콜라보 한 사례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패션계, 외식업계,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해보고 다방면의 작업을 통해 사업 범위를 넓히고 싶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문명사회의 재앙', EMP를 아십니까?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모습은 이미 우리에겐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 뿐만 아니다. 컴퓨터, 전화기, 텔레비전 등 우리 일상은 수많은 전자기기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지닌 전자기기들이 한순간에 먹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공상과학 소설, 영화, 게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만 볼 수는 없다. 지난 9월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 원숭이도 이해하는 EMP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폭탄의 일종인 수소폭탄을 장착해 "초강력 핵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선포한 바 있다. EMP는 'Electromagnetic Pulse'의 약자로, 벼락이 내리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전자제품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파손시키거나, 화재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220V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한 순간 500V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그 전자제품이 원래 견딜 수 있는 전압보다 가해지는 전압이 더 커지고, 결국

회로가 타거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EMP의 원리다.

EMP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지만 이 현상은 인위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아도 발생하는 자연현상 중 하나다. 비 오는 날 벼락 맞은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EMP 현상 중 하나인데, 벼락이 내리쳐 나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압전류가 발생해 나무가 연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자매품도 있습니다

EMP 현상은 전자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대전에서 무기로 이용되는데, 크게 2가지 종류의 무기가 존재한다. 핵전자기펄스(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무기와 비핵전자기펄스(Non-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무기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개념이 있다. 바로 '감마선'과 '이온화 현상', '단파다. 감마선은 쉽게 말해서 핵폭발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중 가장 강하고 뜨거운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감마선이 대기에 있는 공기와 부딪히면 공기가 전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이온화 현상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단파는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다. 이를

알았다면 다음 설명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핵전자기펄스 무기는 말 그대로 핵폭발을 이용해서 EMP 현상을 강제로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온화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긴 막대한 전자가 타격지점 일대의 전자기기에 엄청난 부하를 주고, 결국 EMP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더해 핵폭발 자체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것이기에, 폭발 이후 나타나는 EMP 효과도 수 천 km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비핵전자기펄스 무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단파를 방사해 주변 전자장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 무기 또한 핵전자기펄스와 마찬가지로 단파 자체가 전자기기에 과부하를 주어 전자기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 다만, 핵폭발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에 방사능으로 인한 후유증은 전혀 없고, 원하는 범위와 강도로 EMP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멈춤, 그 이상

EMP 공격을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공격을 받은 장소는 문명의 수준이 최소 농경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 벼락 맞은 나무가 불에 타는 것도 EMP 현상 중 하나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없이 이루어지는 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옷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아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옷을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옷도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되므로 공장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가내수공업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EMP 공격을 당하면 그저 두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한국전기연구원 전기환경연구센터 이재복 센터장은 "EMP 무기가 지표와 가까운 곳에서 터진다면 대기가 전자기파의 진로를 막아 범위가 좁아지고, 높은 곳에서 터지면 범위가

넓더라도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는 전자제품이 동시에 먹통이 되는 것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변전소나 발전기 등 민감한 기기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폐막 설치 등 대비를 해놓는다면 통신이 먹통되는 혼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EMP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전략병기로 여겨지며, 세계 각국 역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무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방어체계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때, 혹은 언젠가의 끈을 놓지 말라. EMP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문명사회의 재앙'이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 김상헌 vs 최명길, 승자는 없다

영화 <남한산성(2017)>은 국내 박스오피스 6위에 올랐고,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상영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남한산성>의 이야기를 이끄는 요소는 김상헌과 최명길의 대립이다. 영화에서 김상헌은 척화파를 대표해서, 최명길은 주화파를 대표해서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나라의 명운 앞에서 과연 무엇이 그들을 논쟁 속으로 이끌었을까.

김상헌은 "조선은 명을 섬기는 나라로서, 명에 대항하는 청과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내세웠다. 청과 싸우는 것이 위기에 처한 명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은 임진왜란 때, 당시 명 황제인 만력제에게 큰 빚을 진 바가 있다. 반면, 최명길은 "청에게 항복함으로써 군대를 철수시켜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단 나라가 존재해야만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열핏 들었을 때, 김상헌은 단순히 명과의 명분에 얽매어 망국의 길을 걷자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당시 청나라의 20만 대군이 조선을 침략해 멸망 직전에 처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김상헌의 주장은 더더욱 현실성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때 최명길은 조선의 항복을 이끌어내어 눈앞에 봉착한 청군을



제목 : 남한산성  
연도 : AD 2017  
연출 : 황동혁

<남한산성(2017)>은 실제 역사 사건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청나라 대군을 눈앞에 두고 남한산성에서 항쟁한 인조와 대신들, 그들 휘하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최명길과 김상헌의 논쟁이다. 최명길은 청에 항복하자고, 김상헌은 청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말의 싸움'을 벌였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조의 내적 갈등을 다룬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철수시킴으로써, 조선의 존속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김상헌은 그저 명분론에 매몰된 이상주의자이며, 최명길은 보다 현실적인 이득을 쟁취해낸 냉철한 협상가인 것이다.

하지만 <남한산성>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김상헌의 주장은 당시 국제 정세로 생각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권기중(역사문화학부) 교수는 "당시 청은 명과의 전쟁으로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며 "장기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조선이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최명길을

인내심도 없이 화친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당시 군사적 열세로 인해 성내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거둬낸 전투로 백성들의 피해도 심각했다. 이런 상황이 최명길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내몬 것이다.

<남한산성>에서 드러나듯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옳다 그르다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조선이 청나라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최명길의 주장이, 청나라의 경제적 침체를 고려했을 때는 김상헌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 알아뉘도 쓸데없는 시험인 조선



### <편집자주>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 김 기자 김막알잡의 진행자
- 이 씨 시험에 자신의 인생을 건 남자
- 그 씨 저번 수능에서 만점 받은 여자
- 쩜 씨 더 높은 꿈을 위해 매년 N수생인 사람

김 기자: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 걸 기념해 이번 김막알잡은 시험에 관련된 잡다한 지식을 준비했는데요 '수능'하면 선배들을 응원하고, 후배들에게 응원받던 고교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시험 응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씨: 조선시대 때는 특이하게도 그림을 그려 응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민속화가인 단원 김홍도는 제자를 위해 <해담노화(蟹盞蘆花)>를 그려 과거 거급제를 응원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참게 두 마리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서로 갈대꽃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참게 그림에는 다의미가 있죠. 당시 등에 딱딱한 껍질을 쓰고 있는 게를 한자로

'갑(甲)'이라 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합격 등급이었습니다. 갑(甲)과, 을(乙)과, 병(丙)과 중 장원이 바로 '갑과'인거죠. 결국 게를 그린 그림은 갑과로 합격하라는 염원이 담긴 것입니. 또한, 한문 문장은 당나라 시인 두목이 읊은 게에 대한 시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다의 용왕 앞에서도 옆으로 걷는다(海龍王處也橫行)'는 것으로 임금 앞에서도 소신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씨: 조선시대의 과거 문화는 실제로 현재까지도 일부 계승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 전에 옛을 먹는 문화인데요. 대부분 끈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참게 그림에는 다의미가 있죠. 당시 등에 딱딱한 껍질을 쓰고 있는 게를 한자로

입에 물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옛은 시험 때 도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옛에는 단맛을 내는 맥아당이 있는데 이는 포도당 두 개 결합한 형태입니다. 포도당은 인간의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죠. 또한, 맥아당은 기침과 가래 해소에 효과가 있어 시험 시간에 기침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쩜 씨: 아무리 포도당이 뇌를 깨워도 어쩔 수 없는 방해요소가 있기 마련이죠. 공부를 하는데 노래가사 한 구절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래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현상을 이어웜(Earworm, 귀속의 벌레)이라고 합니다. 마치 귀속에 벌레가 있어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로 멈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웜이 있는 곡의 공통점에는 빠른 박자와 흔한 멜로디 형식, 불규칙한 음정 간격이 있습니다. 이어웜이 동요를 쉽게 기억하는 것도 이와 같은 효과입니다. '반짝 반짝 작은 별' 동요처럼 전형적인 멜로디 형식이 더 뇌리에 각인되는 거죠.

김 기자: 수험생 선물을 참쌀떡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김막알잡은 더욱 잡다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의화정

알파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든 태풍과 같은 키워드이다. 그동안 알파고에 쓰인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이제 IT 업계에서 모르는 간첩 소리를 들을 만큼 핵심 기술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DeepMind)'는 최고의 인공지능 개발 회사로 발돋움하였다. 최근 딥마인드에서는 알파고의 최종판인 '알파고 제로'를 발표했다. 알파고 제로의 경우, 기존 인간 바둑 고수의 기보 없이 스스로 바둑의 이치를 터득하는 새로운 기법이 적용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와 커제를 이긴 알파고 마스터를 알파고 제로가 약 1개월이라는 학습 시간을 통해 넘어섰다는 것이다.

있어야만 올바른 기계 학습과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파고 제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컴퓨터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선 것이다. 만약 해당 기술이 인간 세계의 범용적인 분야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찾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인공지능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서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는 분명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만의 특기로 사회구성원이 되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만약 인간의 모든 노동력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왔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나 사회는 변화하기에 이러한 대격변의 시대가 오더라도, 자신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기술을 가진다면 이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성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미용관련 산업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용 같은 경우는 매우 섬세한 손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감성적인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과학자들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직군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대량의 빅데이터가 이러한 의문은 매우 오래 전부터 고찰되어

이러한 의문은 매우 오래 전부터 고찰되어

서화정(IT응용시스템공학과) 교수

## 인공지능의 시대

### · 삼 학 송 ·

## N포세대, 혐오를 삼니다

요즘 신문 사회면에서 '혐오'라는 키워드의 기사를 찾아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성별적인 다양한 이유로 사회는 혐오를 자행하며, 가까이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주변을 조금만 신경 써서 둘러본다면, 본인이 자각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혐오를 마치 유희마냥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스피치(Hate Speech)를 쏟아냈고, 이 광경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증오주' 간의 21세기 판을 보는 것만 같은 서늘함을 선사했다. 혐오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혐오의 생산과 소비는 당장 대학가를 들여다보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입학 전형에 따라 같은 대학생들끼리도 '수시충', '적성충', '논술충' 따위의 말로 폄하하는 것은 아마 대학생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를 참조하더라도, 주간 학생들이 야간 학생들을 '야간충'이라고 부르며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그는 웃음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저열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다. 웃음을 주는 '우스꽝스러움'이 상대방의 추락이나 불행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 비추어본다면,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것만큼 상대방을 추락시키는 일이 또 어디 있던 말인가?

혐오가 사회적 트렌드라는 사실은 대학가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해진다. '맘충', '개저씨', '급식충'..... 이전부터 문제 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게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계층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혐오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이러한 양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중심에 대학생들을 전후로 한 청년세대가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이렇게 '혐오'에 열광하는가?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쥐고 있다. 최근 청년들은 'N포세대'라고 불리며, 이전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 N가지 포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지금 사회는 '혐오' 외에 다른 즐거움을 얻기에는 너무 힘들어져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현상을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무언가 '혐오'할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240번 버스 기사' 사건이나,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네티즌들은 너무나 손쉽게 '기해자'를 확정짓고 헤이트

『1984』에서 시민들은 매일 2분 동안 반역자 '골드스타인'에 대해서 증오를 쏟아내는 시간을 가진다. 자극의 혐오 문화가 어찌하면 '현실'을 향해서 청년들이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것은, 비단 내가 같은 청년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주형 편집국장

### 기자수첩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는 그 나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실제로 덴마크와 뉴질랜드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패지수가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순위 10위권 안팎을 오르내리는 경제대국임에도, 지난해 받아든 부패지수 성적표에는 176개국 중 52위라는 초라한 점수가 적혀있었다.

## 우리 사회의 결림돌, 부패

태도는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협회가 사건에 대응한 방법은 홈페이지에 무성의한 사과문을 게시한 것이 전부였다. 계속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팀의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대표팀의 거듭된 부진에도 이용수 부회장과 김호근 기술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기는커녕 은근슬쩍 서로 자리만 바꾸는 '회전문 인사'로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처사에 비난 여론이 일자, 결국 김호근 기술위원장은 떠날리듯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축구계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정몽규 회장은 지금도 거세게 비난받고 있는 김호근 전 위원장과 신태용 감독의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공공 횡령, 꼬리 자르기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축구협회의 행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부패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부패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부패 근절을 위해 정부는 부패의 사슬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춰나가야 한다. 또한, 비리를 일삼는 사회고위층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사실상 '도둑질'을 묵인하는 것과 같으며,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들은 마치 '촛불 시위' 때처럼, 단호하면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관철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낙산에 올라

우리나라에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린 그림에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는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 그림은 그가 마련한 전시장에서, 그의 지인들에게 수백, 수천만원의 값어치가 매겨져 팔립니다. 전시장을 마련하고 지인을 초청할 수 있는 누군가는 예술가라는 호칭을 기세등등하게 거머쥐고, 그렇지 못한 누군가는 수십 권의 크로키 노트에 손톱이 갈라질 정도로 연습해도 예술가라는 호칭은 여전히 멀리에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누구를 예술가라 불러야 할까요? 예술가라는 말의 기준에 의문이 듭니다.

## 예술가보다 작가로 불리고 싶다

"한국예술에 한 획을 긋는 예술가가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3년간의 임시를 버티고 4년제 회화과에 들어온 학생이 있습니다. 집안사정을 생각해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합니다. 기초연습만도 수십 번, 지금까지 쓴 크로키 노트만 몇 권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수예술을 전공한 이 학생에게 예술은 고사하고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생계를 유지하기란 벅겁기만 합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 공무원을 선택합니다. 이후론 때때로 그림을 끄적거리며 과거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그 때의 작품을 매만질 뿐입니다.

노력과 열정만으로 도달하기에 예술가라는 직업은 너무 먼 신기루 같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문화예술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금전적 여유가 없는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개성 있는 작품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대중들은 이들을 '예술가'가 아닌 '작가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세계와 개성을 표현해내는 사람을 '작가'라 부른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예술가보다 작가가 더 많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자수(매선 2)

### 낙산만평

박아름(매선 1)



## 2018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 일반대학원(주간)				■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	계열	학과	대학원	학위	계열	학과
일반 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일반 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사학과				영미문화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사회계	무역학과	행정·도시정책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경제학과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예·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회화과	예·체능계	뷰티예술학과
학과 간 협동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의류패션산업학과		안보전략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무용학과	국방관리학과		
			국방시스템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평가전공, 부동산개발및관리전공, 지적및토지관리전공, 한중부동산컨설팅전공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 원서접수 및 발표

원서접수기간  
2017. 11. 20(월) 10:00 ~ 12.1(금) 22:00

접수 방법  
대학원 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라이(http://uwayapply.com) 인터넷접수

면접 전형일  
2017. 12. 9(토) 10:00 ~ (학과별 변동 가능)

합격 발표  
2017. 12. 21(목) 오후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전화 문의  
(02)760-4271(일반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8 서울시 성북구 성신로 16길 118

# 초록색만 먹는다고? No! 눈과 입이 즐거운 채식주의



채식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면서 최근 대학에서도 채식을 접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러 대학에서는 채식 동아리가 잇따라 설립됐으며, 대학가 주변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이 속속들이 문을 열고 있다. 한편,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주의자는 약 2%, 채식주의 선호인구는 20~30%로 추정된다. 이렇게 채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지금, 채식주의자들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점심시간이 되자 서울대학교의 한지연(인문 1) 학생은 강의를 마치고 학교 식당으로 향했다. 얼핏보면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학교 식당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한지연 학생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식당 안에 작게 마련된 채식코너다. 그녀는 몇 달전부터 채식을 시작했다.

“아침은 페스코(Pesco), 점심은 비건(Vegan)으로 하고 저녁엔 혼용을 했어요.”

몇달 전 그녀가 채식을 시작하던 시기의 식단이다. 그렇다면 페스코, 비건이란 무엇일까? 우선,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채식주의자는 보통 7단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완전 채식주의는 비건부터 달걀, 우유, 유제품까지 허용하는 락토 오보(Lacto ovo), 여기에 어류까지 허용하는 페스코,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기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까지, 허용하는 음식의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눠 부른다.

흔히 채식주의자하면 ‘맛없는 풀떼기만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 채식주의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낡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채식주의자가 늘어남에 따라 먹거리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 한식까지 섭렵한 채식

사실 동물성 식품을 빼고 한식 밥상을

차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됐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나 간장, 물엿에도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산동에 위치한 ‘오세계향’의 모든 요리에는 동물성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맛이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다면 오산이다. 실제로 기자가 먹어본 음식을 예로 들어보자.

오세계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밑반찬인 장조림과 어묵볶음에는 동물성 재료가 1g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본판의 맛을 재현했다. 장조림에 들어가는 고기를 콩고기로 대체해 고기 질감과 맛을 냈고, 어묵에는 생선 대신 곤약을 사용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먹으면 일반 장조림과 어묵볶음으로 착각할 정도로 질감과 맛이 비슷하다. 종류 또한 짜개부터 비빔밥까지 다양해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 식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 No 에그, No 밀크, No 버터 빵

사실, 빵에도 동물성 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빵만 먹더라도 완전 채식주의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동물성 재료를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파는 곳이 있다. 신촌에 위치한 ‘더브레드블루’는 본래 순식물성 베이커리를 지향하던 곳이었지만 그것이 비건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이 가게의 인기 메뉴는 치아바타와 비건 버거다. 치아바타는 본래 인공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만드는 이탈리아빵이다. 이에 대해 박재형 이사는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판매해온 제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맛과 비주얼이 발전해 인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채식에 달콤함까지 더해

‘채식주의 도입을 시작하고 직접 채식 음식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카페를 연 사람도 있다. ‘뿌리온더플레이트’의 강대웅 대표는 “단순히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서 맛있게 채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장에서는 ‘유기농 현미’를 가지고 글루텐프리 디저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글루텐이란 밀이나 곡류에 들어가는 단백질 성분으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른 재료들도 메이플 시럽, 유기농 두유 등 건강한 재료만 사용한다. 이곳의 인기메뉴는 ‘현미 플레인 케이크다. 섭취 후에 속이 편하면서도 맛있고, 무엇보다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안타깝게도 현재 매장 내 식사는 불가능하고, 방문 포장 판매를 통해서만 이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먹거리가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채식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든 편이다. 그래서 최근 대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동아리를 만드는 사례

가 늘고 있다.

### 너도나도 채밍아웃

연세대학교 채식동아리 ‘베지밀’의 최민영(독어독문 4) 회장은 “채식주의자들끼리 쓰는 은어가 있다”며 “채식주의를 시작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힘들어 생긴 ‘채밍아웃’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식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무작정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 앞으로 채식주의자들이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베지썬’도 있다. ‘베지썬’은 가장 최근에 설립된 채식주의 동아리다. ‘베지썬’을 만든 유다님(중국어문화 3) 학생은 “처음에는 주위에 채식하는 사람이 혼자뿐이라 망설였다”고 고백했다. “올해 3월에 다른 학교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채식하는 친구를 알게 돼서 용기를 얻고 만들게 됐다”며 “채식을 안하는 사람들에게 채식주의자도 미식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건강과 동물-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따뜻하지 못한 시선 속에서 채식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대웅 대표는 “채식은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채식이 좋아도, 어떤 사람에게도 채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식단이 있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데 채식을 고집하며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몸에 맞다는 전제 하에, 즐겁게 채식을 해나갈 수 있다면 가장 건강한 채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장동화 기자  
am929@naver.com



## 지하철 타고 서울나들이

## 단풍은 우이신설선을 타고

최근 아침마다 얼굴에 닿는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두꺼운 코트나 롱패딩을 꺼내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 아니다. 이처럼 가을이 선뜻 다가오자 고속도로는 단풍구경을 가는 차량들로 주말마다 북적거리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는 이마저도 ‘큰맘’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좋은 단풍이 팔도에 이르는 명산에만 필리는 만무한 일. 단돈 1,250원으로 단풍을 원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런 9월에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은 강북구, 성북구를 거쳐 동대문구 신설동역까지 이어졌다. 경전철이 개통된 주요 목적은 강북구와 성북구 시민들의 출퇴근을 돕는 것이다. 경전철의 노선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노선이 북한산 일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산우이’, ‘북한산보국문’ 등 북한산이

들어가는 역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북한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역들도 그 일대에 위치한 만큼, 어느 역에서 내리더라도 북한산으로 향하는 길이 그리 멀지 않다.

등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북한산에는 ‘둘레길’이라는 산책 코스가 갖춰져 있다. 둘레길은 일반적인 등산로와 다르게 아스팔트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무심코 걷다보면 산책로인 것조차 모르고 지나칠 정도다. 북한산 둘레길에는 총 21가지 코스가 있는데, 코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북한산보국문역과 가장 가까운 ‘솔샘길’은 21개 둘레길 코스 중 4번째 코스다. 이 길은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목재로 포장된 도로라 보행에 용이하다. 경사도 완만해 산책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첫 방문이라 길을 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곳곳에 안내판이 있거니와, 다른 길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길만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샘길에 진입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풍경은 산책로 앞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고 있는 청설모들의 모습이다. 둘레길의 야생동물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익숙한지, 사인을 찍거나 옆에서 구경해도 그저 먹는 일에 여념이 없다. 청설모를 뒤로 하고 계속 길을 가다보면, 산책객을 위한 시설도 만나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숲속의 쉼터’라고 불리는 북카페다. 특이한 점은 이 북카페가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 중간에 넓은 공터에 덩그러니 놓여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따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누구나 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산책을 하다가 힘들 때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쉬어가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둘레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산에 오르기 힘들까봐 가을 산을 찾지 않았다면, 이번



1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단풍. 2 둘레길 코스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둘레길 코스 곳곳에 설치돼 있어 탐방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3 둘레길 코스의 일부. 사진처럼 길이 평평하기 때문에 누구나도 편하게 걸을 수 있다. 4 ‘숲속의 쉼터’ 안내 표지판. ‘숲속의 쉼터’에는 책장이 마련돼 있어 누구나 마음 편하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다.

주말을 이용해 가벼운 마음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을 타보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북한산 둘레길을 산책한다면 당신의

가을도 어느새 단풍처럼 울긋불긋 물들 것이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